



교회가 모인 교회

베이직커뮤니티교회의 목사이자 세계관동역회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소장인
조정민 동역자님을 본지 발행인인 김승욱 교수가 만났습니다.

김승욱
(이하 김) 베이직커뮤니티교회가 첫 개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스톤에서 한인들과 함께 보스톤은누리교회를 이교셨던 걸로 아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조정민
(이하 조) 처음 13명의 교인들과 함께 시작했다가 4년 만에 600여 명의 교회가 되었어요. 당시 은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온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기대를 갖고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학 공부하며 시작된 교회 일로 일이 두 번 돌아왔고 심장 수술을 두 번 해야 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가 부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부분 이민교회는 수평이동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영적 성장이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가 교회일로 내몰다 보니 서로 부딪히며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강박해지고 자꾸만 옮기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들을 확대할 수 있겠다고요. 이민교회는 각자의 삶의 배경과 신앙 정도가 각양각색인데 하나의 틀 속에 넣고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각 성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했고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사역패러다임은 어떤지 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 그런 계기들이 현재 베이직커뮤니티교회에서 목회관점과 철학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조 과거에는 개혁하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착각했거든요. 교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개혁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내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원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회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베이직교회의 첫 단추를 그렇게 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하고,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 조직과 제도의 틀을 당연히 먼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아니라란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역의 틀 속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을 발견하고 스스로 삶을 변화되는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소극적인 역할이지요.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목회자가 교회 비전 선포하고 성도들을 조직해서 목회자의 비전과 방향에 맞춰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성도가 삶을 스스로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목회자가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목회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소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죠.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고 먹고 소화하고 깨달아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역도 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붙잡고 씩씩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교회 초창기에는 기본 단위의 공동체인 목장/구역도 나누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적인 방법과 언어로 소통하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핍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야말로 세상보다 못한 관계를 만들거든요. 오직 한 가지 공동체만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통독공동체만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어찌 알아 합당한 기도를 할까 싶어서 성경을 읽고 서로 자연스러운 소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급한 기도는 교역자들과만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 내외가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3년 전. 그 이후 1년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 현재 등록된 교인이 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구역이 없는 건가요?

조 지금도 구역과 같은 조직은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통독 공동체를 꾸렸고, 이 공동체가 구역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한 모임이 열명 안팎으로 모이고 48개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출석하는 정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라고 종용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기로 하고 지금까지 2년 반 남짓 지나

는 동안 상상하지도 못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보다는 자신이 말씀대로 부단히 애쓰는 각 개인의 고충이 지마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가정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읽을 때 성경의 몇몇 단어가 눈에 보이다가 두 번째에는 문장이, 다음은 문맥이 눈에 들어온다는 간증이 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것

이 열매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소리 내어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새신자와 함께 모여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 성경통독이 그저 조용히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함께 읽는 거군요?

조 매일 각자가 성경을 읽고 모이는 날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날의 분량을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죠.



김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도 개최되었고, 국내외에서 이를 기념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무엇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조 마틴 루터가가 주장한 종교개혁 5대 sola (sola)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가장 '베이직'이겠지요. 한 마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꼭책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종교라는 틀 가운데 어떻게 가렸는지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고 생명이자 빛이고 말씀이심을 친히 살아내셨지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려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셔서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은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술한 제도와 미디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미디어(media)가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썩어놓은 굴레로부터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완의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까닭은 로마 가톨릭 시스템 속에 있는 교리 등의 여러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간소화 시켜놓은 데 국한했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Protestant) 교회라고 하면 예수 중심의 공동체(eccllesia)로 회귀해야 마땅하지만 사실 그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합니다. 오히려 Protestant(개신교) 교회는 서로 Protest(프로테스트, 시위)하다가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가 아닌, 유대교와 비슷하면서도 종교성만 더 강화된 또 다른 종교성의 족쇄에 묶여져 있다고 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원로우르교회의 영향을 받았습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20년 사역을 점검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달아가는 것보다 더 종교적이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의도했던 영성 대신 종교성만 자라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메가 처치의 흥대를 내며 따라가려고 하니 더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공동체(에클레시아, Ecclesia)'의 개념과도 다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삶 중심의 예배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셨거든요. 삶 중심으로 바뀌놓은 예배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하나님 나라(Basileia)에 있었지요. 하나님나라는 '종교'라는 틀이나 시스템과는 별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거나 훈련시키는 데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도 실패한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 날마다 교회로 벗어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가 되어 흠여졌기에 그곳에 교회가 탄생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주후 313년 경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의 외연이 급속히 확장되었지만, 그 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가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교로 공인되는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이단적 요소들이 몰릴 듯 들려와 성전에 또다시 얽매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장애물을 낳으며 부속된 전유물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루터가 이에 저항을 시작함으로 비록 성도들이 성당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도로 벗어나는데 여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싶어요.

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등 종교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날에도 역시 종교라는 틀 안에 갇힌 크리스천이 많습다. 열심은 있으나 열심의 공로를 찾기도 하고요.

조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의 열심은 종교적 마일리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떠르다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마일리지 되고 그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교회 안에 또 다른 지배계층이 생겨나고 그 상급으로 일종의 신분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 선 넘어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아 이제 목회 8년차입니다. 아마도 기존의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사람 목사 취임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웃으면서 그런 말 합니다. 솔직한 사람에까지 테러다 준 적 있는지, 또한 사람 입을 한번 닦아줘 봤는지, 돈 없는 사람에게 밥값을 한번 대신 내줘봤는지 말이죠. 살면서 어떤 일로 손해 보았으며 인생에 정말 제대로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넘어져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입사하고 6년 동안 새벽 네다섯 시에 출근했습시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살았

다고 애쓰는 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회심이다, 헌신이다 할 수 없지요. 다들 그렇게 살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이야기 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십년 이상을 목숨으로 일했어. 당시에는 목수가 가게 자리놓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시다. 납땀 장사처럼 동태를 두루 다니며 부서지고 고장날 것 있으면 고쳐주고 뜨내기처럼 살았습시다.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이 서른이 되고 나서야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나이 서른은 지금의 오십 정도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삶을 모르고는 절대로 사람을 섬기는 목회가 어려워요. 삶이 없는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변화한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게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간단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헌금을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정직한 NGO나 NPO를 돕기 위해 쓰면 한순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이웃을 돕는 것이지 교회에만 머물 이유가 없어요.

김 종교적 마일리지, 색다르면서도 경계하게 됩니다. 베이직커뮤니티교회에는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교회로 남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의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조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으려면 그런 계급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담임목사라는 말이 없어야지 어떨까 싶어요. 호칭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 전도사를 두고 수족처럼 부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담임(主任)이라는 말 자체는 말을 담 자에 맡길 일자인데,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미션을 맡기셨거든요. 비서실을 둘 정도라면 목회를 줄여야지, 세상에서 CEO가 하는 것이나 정치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이것을 목회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도와 권위부터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 할 때, 간사든 누구건 다 함께 합니다. 수련회 같은 모임을 갈 때면 간사건 목사건 다 같이 지냅니다. 정말 형제자매라면 세상의 조직이나 관계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내일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수직 성장만을 추구하고 목회자들이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대형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무작정 추구하고 있다면, 2020년을 앞둔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과거의 교회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작은 공동체가 대안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작든 크든 교회공동체가 핵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목회가 비기독교적인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것대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효율적이거나 경제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보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역한다고 본질과 거리가 먼 일들과 씨름하다가 주님과 씨름할 시간을 놓치면 허사지요. 또 어떤 목회자는 교회도 규모가 있어야 일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교회가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성도가 세상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도록 돕는 일이 전부입니다. 성도는 어디서 일합니까? 직장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일합니다. 지금까지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하던 일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의 일한다면 우리끼리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길 원하셨다면 단 열두 명의 제자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천 명, 이천 명씩 모아서 혁명을 하든, 가버나움에 극제사역본부 선교 센터를 뒀겠죠.

복음이란 삶의 태도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초월성은 종교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meta-religion입니다. 이 세상은 종교적 갈등으로 돌아섰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의 배타성을 넘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

아요. 사람이 사람을 거둬나갈 수 없는 일이지요. 목회자의 역할은 오직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고 탄 길로 갈 때 길을 돌이키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머리에 떠오른 건 <별거벗은 임금님> 우화였습니다. 밭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별거벗은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저 좋게 넘어갈 것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회 간다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먼저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까?

김 원리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만 또 모이는 지역교회로서의 조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조 교회가 제도에 묶여 있는 까닭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또한 목적이 아니고,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평생 그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지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듯해도 독립시키고 떠나보내야지요. 교회는 성도를 떠나보내기 위한 공동체여야지 키우고 흠여지지 않는 거대 조직이 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이 말씀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주셨듯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썩어지지 생명이 될 것인지, 생명 없는 세상에 어떻게 뿌리질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 있어

야 해요. 교회 속에만 있으면 종교성은 자라지만 생명을 근거로 삼는 영성은 줄어들어, 축구공 많이 차는데 골을 못 넣는, 볼 점유율은 높는데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갈 현실 감각이나 영적 도전이 줄어들어, 이것이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곳입니다. 실력 없는 영성이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력이 길러져야 그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력 없는 기독교인끼리 모이면 락에회 밖에 되질 않아요. 실력을 통해 세상을 점령해야 합니다. 연주를 하든, 패션을 하든, 영화를 만들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라 한들 세상과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모읍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교인들끼리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세상에 버려두면 성도를 놓친다 말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성도를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목회자 자신에게 묶어놓은 결과 소통 능력이 없는 자재와 같은 교인을 양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아주 오랜 시간 언론에 몸담으셨습니다. 25년간 언론인으로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접한 많은 경험이 목회의 자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세상 경험 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젊은 나이에 목회의 길을 걷어가는 목회자가 대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말이죠.



조 저는 바람직한 것 중 하나가 목회자들의 이중적이라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며 일반 성도들도 평생직장이 아닌 직업을 두어 개씩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몇 개의 직업을 바꿔가면서 삶의 지경을 확장하는데 목회자들이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지 않고서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중적이든 삼중적이든 목회자들이 삶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목회가 어떻게 사회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랍비들처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가려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삼는 목회를 하셨어요. 집근을 달리 해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일이 없는 목회자가 6~7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든 기존의 교인 몇 명이라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새 교회를 개척하려는 전통적인 목회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성도들이 줄어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의 수평이동을 놓고 갈등하는 구조밖에 없어요. 틀에 박힌 목회지 개념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온 세상이 모두 찾아갈 목회지이고 목회의 영역입니다. 목사를

서 일할 자리를 찾는 10만 목회자가 다 직장을 갖고 고속도로 휴게소든 편의점이든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이웃을 매일같이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면 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전도 집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는 가나안 성도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목사님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메신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메신저다.' 이를 스스로 살아가고 있으시죠. SNS를 통해 길을 잃은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고요, 무려 19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가정, 직장, 사람과 사람 사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할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 제가 페이스북에 열두 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나안 성도를 위한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SNS를 통해 매일 성도들이 말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도화된 교회의 한계를 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몇몇 목회자 분들이 배우겠다고 묻습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다 몇몇 악플을 접하면 다들 더 이상 계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매일같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직장 다닙니다. SNS 자체가 진흙탕이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흙탕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 흙탕물이 깨끗해지는지를 바랍니까? 더러운 물일수록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다가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곳입니다.
실력 없는 영성이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길러야
그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뛰어난 영성이라 한들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교육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지요. 벌써 1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으로서 기독교 미디어아카데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정민은 기독교 미디어 자체가 스스로 세상과 고립이나 차단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어떤 미디어든 들어가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살아내는 것이 미디어를 바꾸는 자름길이지 끼리끼리 모여서 미디어를 하나 만든다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 미디어나 미디어 진입장벽이 없어진 현대는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를 얼마나 발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차고 넘치도록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게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메신저에게 미디어 교육으로 적절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미디어 아카데미의 역할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력 높게 만들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제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세계관교육이 이론(theory)이라면 미디어교육은 실천(practice)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운동력을 지닌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졌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크리스천이 메신저로 부름 받았습시다. 누구든지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낚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낚기 위해 수많은 도구가 있어요. 직업이든 상품이든 그 도구가 전부 미디어가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이 복



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향이 있을 때, 24시간 내내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하듯이(벧전 3:15),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가 복음을 먹고 자라고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라 말로 이 시대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믿습시다.

질 |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

조정민 MBC 사회부·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IMBC 대표이사, 은누리교회 목사, CGN TV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배이직교회 목사이자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이다. 저서로는 'WHY JESUS 왜 예수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평의 시간 하늘의 시간',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길을 찾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전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이지 이사이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원장: 조정민 목사)는 기독교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을 길러내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갈수록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 가고, 특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독교미디어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목표

바른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기독교 언론인의 양성
1인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실무역량 강화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 연구하는 인재 육성

2009년 3월 1기를 시작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매년 2기수씩 진행되며, 현재 12기가 진행되고 있다. 아카데미는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배이직커뮤니티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조정민(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 배이직커뮤니티교회), 신국원(총신대 교수), 이승규(합신대 교수), 김승욱(중앙대 교수), 강진국(고신대 교수) 등의 학자가 기독교세계관 기초를 가르치며, 유지은(前 분프로덕션 PD),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오한웅(한마리곰미디어 대표)PD 등이 스토리텔링, 기획, 촬영, 편집 등 미디어 실무를 가르친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현재까지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다수의 졸업생들이 연출 및 조연출, 작가, 촬영기사, 편집기사, 미디어 기사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고 각종 기독교영화제에 출품하여 수상하기도 하였다.

작년 겨울부터 여름, 겨울 수련회 기간에 교외별 기독교미디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부분별하게 노출된 미디어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교육하고, 직접 기초적인 제작 방법을 알려주어 미디어 시대의 메신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돕는다.



홈페이지 www.cmca.or.kr
E-mail cmca@worldview.or.kr
담당간사 홍정석(02-745-7237)